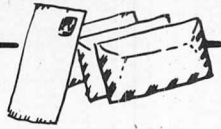


모니터 통신



대전지역 배월순모니터

- 사료제조업체 호황 -

축산물수요가 늘면서 국내 축산업이 활기를 보이자 사료제조업체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12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67개 사료제조업체의 매출액은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규모는 82년7800억원 81년 5700억원에 비하면 2년사이 약80%가 증가한 것이며 이같이 높은 신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사료업체가 배합사료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료곡물(주로 옥수수)은 거의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는데 83년에 수입한 사료곡물은 360만톤으로 5억 2천만 달러어치에 이른다.

사료곡물수입은 82년 2853천톤(376백만달라) 81년 2061천톤 3천만 달라로 83년에 비해 2년사이 물량기준으로 75%, 금액기준으로 49%가 늘어난 것으로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사료의 자급률 향상이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울부터 남아도는 보리를 사료로 사용키로 한데 이어 앞으로 수입사료곡물을 옥수수 일변도에서 다변화하여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수·호밀·귀리·소맥등을 수입해다 쓰고 국내 사료작물재배를 확대 사료수입에 쓰이는 외화를 가급적 최소화할 방침이다.

- 한우 보릿겨만 먹여 4 마리 떼죽음 -

지난 1월10일 오전9시에서 오후8시사이 논산군 노성면 읍내리 88번지 소재 배상수(37) 씨

집에서 사육하던 한우 5마리중 4마리(깃가500만원 상당)가 집단폐사했다. 배씨에 따르면 이날 오전9시쯤암소 7년생 1마리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오전10시15분쯤에는 황소13개월생이 오후 12시20분쯤에 암소 7개월생, 저녁 8시쯤에는 암소 7개월생이 잇달아 쓰러져 죽었다는 것.

그런데 집단폐사한 4마리의 한우를 부검한수의사에 따르면 맥강(보리겨)을 사료로 먹일때 거친여물(볏짚)과 섞여 먹어야 하는데, 맥강만 1주일간 계속 먹어서 위의 돌기부분에 누적위가 팽창되어 죽은것으로 알려졌다.

- 돼지 3만 2천두 수매 -

충남도는 돼지값 조절을 위해 84년1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축협과 대한중합식품을 통해 돼지 3만 2천 1백두를 수매키로 했다. 수매할 돼지는 축협에서 288,000두 대한중합식품에서 3,300두인데 육성돈(55-65kg)이 13,500두, 규격돈(80-90kg)16,900두, 모돈600두, 임신돈 1,100두등이다.

수매대상은 20두이하 부업규모사육농가이며 수매가격은 육성돈 6만원기준 산지시세 규격돈 8만원기준 산지시세, 모돈산지시세 임신돈 모돈가격에 4만원 가산된 금액이다.

수매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한다.

- 돼지새끼 90마리 원인모를 떼죽음 -

5일 동안 돼지새끼 90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군·축산당국이 원인조사에 나섰다.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맹원호(40)씨는 같은 축사에 10마리의 어미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중 8마리가 100여마리의 새끼돼지를 낳아 그동안 K사료를 급식해 오다가 지난 1월28일 Y사료 10포대를 구입하여 이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급식시켰는데 20일 저녁부터

어미돼지가 설사를 하기 시작, 21일 저녁부터 23일까지 젖을먹던 생후 7일에서 15일된 새끼 돼지 80여마리가 죽고 25일현재 90여마리가 죽었다는 것이다.

한편 군 축산당국은 죽은 새끼돼지의 가검물을 채취, 가축보건소에 의뢰하는등 원인조사에 나섰다.

- 돼지수매 부진 -

돼지값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돼지수매실적이 극히 부진하다. 충남도는 1월 12일부터 3월말까지 돼지값안정을 위해 규격돈(90kg) 1마리당 8만원씩 사육농가로부터 수매해 왔는데 1월27일 현재 32,100두목표에 4.7%인 1,510두를 수매했다.

그러나 이같은 실적은 전국적으로 타도에 비하면 높은실적이다. 한편 돼지수매가 시작되던 지난 1월12일 돼지값은 규격돈의 경우 90kg짜리 1마리에 6만원선에서 8만5천원선으로 올랐다.

- 돼지값 폭락 방지위해 -

정부와 민정당은 돼지값의 안정으로 부업양돈농가를 보호하기위해 축산법의 개정을 준비중이다.

민정당의 정석모 정책위원장은 30일 '돼지 1천두이상을 사육하는 기업양돈가에 대해서는 사육두수를 등록토록하는 규정을 축산법에 신설하겠다'고말하고 '이는 전국의 양돈두수가 주기적으로 크게 늘어나 돼지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부업양돈가를 보호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장은 또 '사육 두수를 등록하게 되면 정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전국의 양돈두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축산법개정안은 2월말 임시국회에 제출될 것이라

고 덧붙였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지난 24일 열린 당정 정책조정회의에서 돼지값의 폭락을 막기위해 기업양돈을 규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었다.

- 생돈값 오르자 농가 수매꺼려 -

당진지방은 양돈농가들의 돼지가격 안정을 위해 육성돈과 규격돈에 대해 비축용수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산지돼지 생체값 인상과 수매 절차가 번거로와 1월 26일 현재 41%의 저조한 실적이다.

당진지방은 양돈농가 11,000가구에서 93,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사육 적정두수는 6만마리인데 비해 33,000여마리나 초과돼 한때는 돼지 생체 한근에 420-45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요즘은 시중시세가 근당 550원 인데비해 수매가격은 520원이다.

- 돼지새끼 떼죽음 -

돼지값이 폭락하고 있는가운데 충남도내에서는 돼지 전염성 위장염(TGE)이 집단발생 지난 달 21-30일까지 305마리의 새끼돼지가 떼죽음을 당했다. 지난 2월2일 충남도 축정당국에 따르면 21-24일까지 아산군 영인면 아산리 맹원호씨소유 돼지새끼 70마리가 전염성위장염으로 떼죽음을 당한이래 1월24일과 25일에는 금산군 추부면 오광리에서 220마리가 이 병으로 죽었다는 것.

또 1월28일-30일까지 당진군 송악면 한진 2리 엄태수씨 소유 돼지15마리가 전염성위장염으로 죽는등 계속 번지고 있다.

인천지역 이연주 모니터

인천지역 돼지고기가격 올라.

인천시는 돼지고기 600g 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1월16일 결정 고시했다.

이번 돼지고기값 인상은 정부의 16만마리수 매계획이 발표되면서 산지에서의 생돈출하가 줄어 돼지고기 도매시장 경락가격의 오름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춘천지역 김영순모니터

- 돼지 증식억제 -

강원도는 돼지값폭락과 증식억제를 위해 이달부터 5월말까지 어미돼지 5500마리를 감축키로 하고 양돈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출하권장과 정부수매에 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7일 강원도가 집계한 지난해 12월말현재 어미돼지수는 25,900마리로 적정수는 24,400마리여서 2마리 이상 출하할 경우 암수 출하 균형을 유지, 4월 이후로 예상되는 돼지과동을 미리 막아 사육두수를 조절키로 했다. 강원도내 중점 감축대상은 100마리이상 사육농가 192호로 2월11일까지 정확한 감축대상농가를 조사, 시·군별로 감축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축협을 통해 정부가 수매하고 있는 돼지는 수매목표 4,800마리에 비해 1,050마리로 수매가 순조로운 편이나 민간 가공업체에서 수매할 1,300마리는 수송비등 경비가 많이들어 수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내 돼지사육 적정두수는 12만마리로 12월말현재 적정수에서 4만마리가 더 증식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돼 증식억제와 감축이 부진할 경우 상반기중 돼지과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돼지수매 고개들려 -

돼지과동속에 시작된 돼지수매사업이 수매가가 시장세를 밀돌아 축산농가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월14일부터 돼지값 안정을 위해 90kg규격돈 1마리에 8

만원씩 주고 수매에 나섰으나 기대와는 달리 20일 현재 춘천, 원주, 고성, 홍천등 4개지역에서 모두 330마리를 수매한데 그쳤다. 이같이 돼지수매가 부진한 것은 수매가격이 산지가격인 9만원보다 1만원이나 싼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축산농가들은 90kg 규격돼지의 수매가 8만원 은 사육비에 그친것이며 자가노력비와 적정마진은 전혀 계상되지 않은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38) (춘성군 신북면)는 "돼지수매를 통해 돼지가격안정을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축산농가의 적정마진과 노력비는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수매가는 산지 가격에 맞춰 변동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박씨(38) (춘천시 후평동)는 "수매에 응하려다 돼지수집상이 찾아와 규격돈 1마리에 9만원을 준다고해서 10마리를 팔았다"며 "수매가격이 산지가격보다 밑도는것은 돼지가격 안정만을 생각해, 축산농가보호 측면은 외면한 처사"라며 수매가는 적어도 산지가격에 맞춰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수매를 시작할 때는 규격돈의 도내산지가격이 8만원선이었던 것이 수매와 동시에 9만원선으로 올랐다"며 "수매가의 인상은 돼지가격의 인상을 초래하게 되어 어렵다"고 했다.

배합사료 질 크게 떨어져

사료값 동결하자 옥수수대신 밀기울을 섞어 가축사료의 질이 크게 떨어진후 소 돼지의 증체율과 닭의 산란율조차 줄어 농민들의 불만이 높다. 가축 사육 농민들은 사료의 질이 떨어지자 소·돼지의 경우 1일 증체량이 평균 700~1,000g이던것이 어림잡아도 300여g이 떨어지고, 닭의 산란율이 평균 65%이던것이 50%정도로 저하되었다고 말했다. 사료의 질이 떨어지자 일부 축산농가들은 밀가루와 콩등을 섞어먹이는등 2

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농민들은 과거의 사료는 포대를 뜯을 경우 옥수수과 대두박(콩깻묵) 등이 눈에 띄었으나 요즘은 밀기울등 만을 넣어 옥수수와 콩깻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질이 떨어져 있다고 했다.

춘천지역 사료업체는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와 대두박, 강피류의 도입원가가 크게 올랐으나 사료값을 올리지못해 질이 저하된 것 같다고 했다.

춘천축협이 한 관계자는 '최근들어 축산농가들이 사료의 질이 떨어졌다며 문의와 항의전화 가 많아 졌다'고 말했다. 사료값은 지난해 11월 초 평균 10~13%까지 크게 올랐었다.

소50마리를 키우는 최씨(40) (춘천시 거주)는 "저질사료 때문에 소의 증체율조차 떨어졌다"며 증체율을 높이기 위해 밀가루, 콩등을 섞어 먹이고 있다고 했다.

대구지역 김노식모니터

- 정부수매자극 출하물량줄어 돼지값 다시 오름세 -

폭락했던 돼지값이 새해들어 정부의 수매계획 발표가 있자 산지출하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회복세로 발전했다. 이같은 회복세는 정부의 수매계획발표에 따라 농가들이 출하를 꺼리고 있는데다 계속된 추위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절대사육두수의 과다로 안정세로 돌아서기 는 여전히 어려울 전망이다며 지난 5일 이후 대구 도매시장(신흥산업)의 돼지 지육경락가격은 kg 당 평균 1400원선으로 지난 연말에 비해 kg당 100원이 올랐으며 출하물량은 지난 연말에 비해 똑 떨어졌다.

- 법정전염병 보상금 지급상한선 확정

경상북도는 지난 1월 21일 법정전염병으로도 살되는 가축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 상한선을 최고 48%올려 지급하고 이날부터

(돼지)30kg미만 : 40,000, 60kg미만 : 80,000원, 100kg미만 : 130,000원, 100kg이상 : 150,000원

(한우)생후 3개월 암송아지 : 1,200,000원, 250kg짜리 암소 : 1,340,000원, 350kg암소 : 1,600,000원

(젃소)암송아지 : 1,480,000원, 수정단계 : 2,370,000원, 첫임신만기 : 3,660,000원씩 보상금 상한선을 적용키로 하였다.

고 침

월간양돈 2월호 오기를 바로 잡읍니다.

- ▲ 30페이지 오른쪽 8째줄 정연찬을 정영찬으로
- ▲ 103페이지 가운데 6째줄 dcwl을 bowl로
- ▲ 107페이지 하단 (2000두폐사)는 삭제함
- ▲ 166페이지 오른쪽 농촌진흥청~되었다는 삭제함
- ▲ 178페이지 오른쪽 20째줄 장세허를 장세호로
- ▲ 178페이지 우하단 이도하 영업부차장을 업무부차장으로